교섭속보

주요요구	
	1. 정년연장, 신규채용
	2. 고정OT 월 20시간
	3. 특별상여금 영업이익 15%
	4. 노동조합 활동 보장

전국금속노동조합 만도지부 이 현 우 / FAX(031)680-6865 / 발행일 2026년 10월 30일(금) / 제 15호

16차

◆ 임금

◇ 교섭 일시 및 장소 - 2026년 10월 29일(목) 10:00 ~ 10:20 평택공장 본관회의실

◇ 참석

□ 노측 : 이현우 교섭위원 외 8명 □ 불참 : 김병철 교섭대표, 최중호 교섭위원

□ 사측 : 김현욱 교섭대표 외 7명 □ 불참 : 없음

□ 사회 : 김양현 교섭위원 (사측)

□ 차기교섭 : 실무 논의

◆ 단체협약

◇ 교섭 일시 및 장소 - 2026년 10월 29일(목) 12:30 ~ 13:10 평택공장 본관회의실

◇ 참석

□ 노측 : 이현우 교섭위원 외 8명 □ 불참 : 김병철 교섭대표, 최중호 교섭위원

□ 사측 : 김현욱 교섭대표 외 7명 □ 불참 : 없음

□ 사회 : 김양현 교섭위원 (사측)

□ 차기교섭 : 실무 논의

- 임금 교섭 주요 내용 -

□ 노 : 많은 조합원들이 기대하고 있다. 안 제시 바란다.

□ 사 : 별도안 없다. 지난 차수에 밝혔듯이 기본급, 일시금, 선성과급 위주로 하자. 조합이 입장을 고수하면 진전이 어렵다. OT만 해도 월 85만원, 월급제수당 18만원이다.

□ 노 : 85만원 맞지 않다. 고정OT는 처음부터 약정통상임금을 얘기했다. 월급제 전환 당시 사라진 상여금 OT부분을 보전받자는 취지다. 현장에서 많은 기대를 하고 있다. 어떤 안이든 안을 내놓고 교섭하자.

□ 사 : 답답한 것은 마찬가지다. 조합이 너무 어려운 문제를 제시했다. 정말 어렵지만 서로가 타결을 위해 눈높이를 맞추자.

□ 노 : 제시할 안에 대해 조합이 어떻게 생각할지 고민하지 말고, 일단 안을 제시하라.

□ 사 : 서로의 입장이 있고 회사안이 부족하다 생각할 수 있다. 회사는 1차 안을 제시했는데, 그 안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고 안을 내라하니 안타깝다. 이후에는 교섭이건, 실무건 눈높이를 맞추어 가자.

□ 노 : 지금 상황에 또다시 취지를 반복해서 설명하는 것은 의미없다. 제시할 안에 대해 고민부터 하지말고 안을 먼저 제시하면 조합에서 판단하겠다.

- 단체 교섭 주요 내용 -

□ 노 : 실무교섭을 통해서 많은 조항이 의견일치를 보았다. 하지만 24개 조항이 여전히 실무에서 정리되지 않아 본교섭까지 오게된 점은 유감이다. 24개 조항을 제외한 나머지 조항에 대해 본교섭에서도 의견일치 된 것으로 동의를 바란다.

□ 사 : 동의한다.

□ 노 : 매년 퇴직자가 100여명씩 발생한다. 재고용이 필요하다. 퇴직금 정산도 상반기도 열어놓자. 의견일치된 안 중 조합 요구안은 전혀 없다. 조합 요구안을 회사에서 검토한 안을 제시하라.

□ 사 : 신규채용을 전사 산보위에서 합의한 바있다. 재고용은 인력운영 측면에서 어렵다. 퇴직금 정산도 7,8,9월로 유리하게 적용해주고 있는데 더 늘리면 실무적으로 힘들다. 정년연장과 신규채용은 섣불리 접근하면 고용불안을 야기시킬 수 있다. 다양한 방향에서 고민스럽다.

□ 노 : 정년연장 법제화는 별개다. (구)만도 사업장에서 유일하게 만도만 재고용을 안하고 있다. 정년연장 법제화 되더라도 그때까지의 소득공백을 줄이자는 취지로 재고용을 말하는 것이다. 재고용은 정부에서도 권고하고 있다. 희망자에 한해 받고, 임금이 부담된다면 그 또한 협의하면 된다. 이것마저도 부담이라 할 수 있겠지만 긍정적인 검토바란다. 곧 퇴직을 앞둔 1966년생부터 시행하자. 청년일자리 또한 기업의 사회적 책무다.

□ 사 : 조합과 생각이 다르다. 기업은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고민할 수 밖에 없다. 자동차 산업은 큰 변화를 앞두고 있고, 우리는 그 속에 처해있다. 조합측의 전향적인 검토 바란다.

더 이상 현장을 기만하지 말라

회사는 조합이 입장을 고수하면 진전이 어렵다고 한다. 안은 내지 않으면서 노동조합에 양보부터 하란다. 전 조합원이 기대한 교섭자리를 이토록 짓밟은 회사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합의된 조항에 조합의 요구는 하나도 없다

회사에서 받아들인 것은 부담이 전혀없는 기존 단협 조항이고, 현장이 요구한 핵심은 단 한 걸음도 나가지 못했다. 24개 조항이 끝내 정리되지 않은 채 본교섭에 올라온 책임은 회사에 있다.

노사저널과 교섭장은 서로 다른 회사인가

노사저널에서는 실질적인 논의를 말하고, 지부가 입장을 바꾸면 적극 나서겠다고 했다. 조합은 어떤 안이든 내놓으라는 가장 낮은 요구까지 했다. 지면에서는 타결 의지를 말하고 교섭장에서는 빈손으로 앉아 전향적인 검토를 바라고 있다. **안이 없는데 무엇을 검토하라는 것인가.** 이것은 교섭이 아니라 시간 끌기고, 조합원 기만이다. 현장의 인내는 무한하지 않다. 회사가 불러온 이 투쟁을 더욱 가열차게 임하라는 뜻으로 알겠다!